



투명인간이 됐다고 숨소리까지 투명해지진 않아

수리아의 검-IV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철의 산 차크라발라 (10)

비가 그친 후의 하늘은 눈이 시릴 정도로 파래서 차크라발라 산의 어둠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느낌이 었다. 사람들은 이제 막 수아나를 강물에 띄우고 있었다. 발견됐을 때 입고 있던 옷도 강에 던져졌다. 그녀의 몸이 서서히 강물을 따라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장례 행렬을 따라온 몇몇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어른들 역시 먹먹한 표정으로 그런 아이들을 달랠다.

“수아나와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란다.”
난다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그리고 세라를 떠올렸다. 정말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는 걸까. 그렇다고 해도 서로를 알아볼 수조차 없을 텐데, 그것을 재회라고 할 수 있는 걸까. 그런 말을 위로로 삼는다는 건 그 아이들에게도, 난다 자신에게도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다는 강물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다 수아킴이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수아킴은 집에서 싸 가지고 온 보리빵과 역시 보리로 빚은 술인 창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여기 사람들의 풍습이지. 하지만 이렇게 금방 또 저 창을 마시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거야.”
몸을 드러낸 나크였다.

“사람들이 아무도 살인자를 찾으려 하지 않는 게 놀라워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살인자를 찾아낸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누가 누구의 죄를 묻고 벌준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거든.”
“그가 저지른 죄가 곧 그를 벌한다. 또 그 말을 하 시려고요?”

“맘에 안 드냐? 대신 이들은 그 죄에 대해 용서하지도 않을 거야. 벌을 주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난다는 보리빵을 조금 떼서 입에 넣었다.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수아킴이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크의 몸이 다시 투명해졌다.

“잃어버렸다는 그 여자 아이는 찾았니?”
수아킴이 난다 옆에 턱씩 주저앉으며 말했다. 난다는 그제야 데비 생각이 났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이상하리만치 데비에 대해서는 별 걱정이 되지 않아 놀라기까지 했다.

“아니, 아직 찾지 못했어요.”
“흠. 도대체 어떤 아이인 걸까.”

난다는 수아킴의 의도를 알 수 없어 그의 얼굴을 뺨히 쳐다봤다.

“아니, 이제 비도 그쳤으니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네 친구를 계속 참고에 내버려둘 수도 없잖아?”

수아킴은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는 말투로 이야기했다. 난다는 그런 수아킴의 태도가 어찌지 이상했



삽화 · 김홍인

다. ‘지금이나 무니 걱정을 할 때인가.’ 고개를 가웃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무슨 일이지요?”
“아마 잠부에서 온 배가 보이기 때문일 거야.”
수아킴은 난다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부에서 배가 왔다고?’ 난다는 놀라서 사람들이 올라간 언덕을 쳐다봤다.

수아나나 장례 때문에 마을은 아직 텅 빈 상태였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그렇지?”
무니가 칸타카를 보며 말했다. 그때 막 잠에서 깬 데비가 무니를 향해 쪼르르 달려와 매달렸다. 무니는 좀처럼 자신에게 먼저 다가오는 법이 없는 데비에게 조금 당황스러워하며 그런 그녀를 쳐다봤다.

“배고파.”
“그래. 네가 그럼 그렇지.”
무니는 그녀에게 아침에 수아킴이 주고 간 보리빵을 건넸다.

“이렇게 매끼를 꼬박 챙겨 먹어야하는 녀석이 도대체 며칠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냐?”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빵을 다 먹어버린 데비의 귀에는 이미 무니의 말은 들어오지 않았다. 칸타

카의 꼬리를 세 갈래로 땅의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기 필요할 때만 말을 거는군.”
무니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가 휩쓸고 간 마음은 행한 느낌을 주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 역시 따뜻해 보이기보다는 차가워 보였다.

무니는 사라졌던 데비가 돌아온 그 밤을 떠올렸다. 그날 밤, 무니는 세 번째 검 조각의 힘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었다. 검 조각을 손에 쥐고 집중하자 조각을 들고 있던 손이 투명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온 몸이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완전히 지워졌던 순간의 놀라움은 아직도 생생했다.

“기다릴 것 없이 그냥 한 번 나가볼까...”
무니는 혼잣말을 하며 가방에 들어있던 아루나검을 꺼냈다. 이 마을에는 애초에 문을 걸어 잠그기 위한 자물쇠 같은 게 없었다. 바람에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험거운 걸쇠만이 달려있을 뿐이었다. 그러니 사실상 무니가 마음만 먹는다면 안에서든 충분히 열 수 있었다. 문을 열 이유가 없었을 뿐이다. 무니는 검을 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걸쇠를 풀었다. 칸타카와 데비가 동시에 무니 쪽을 쳐다봤다.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데비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칸타카, 재 잘 지켜야 된다!”
칸타카는 꼬리를 흔들며 보였다. 무니 역시 고개를 다시 한 번 끄덕여 보이고는 손가락으로 문을 툭하고 밀어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창고 안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무니는 주머니에서 진주 모양의 검 조각을 꺼내 손에 꼭 쥐었다. 그러자 몸의 형태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니 투명하게 변해갔다.

무니는 일단 수아나나 집에 가보기로 했다.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그 아이의 부모들 밖에 없어 찾기는 쉬웠다. 이윽고 어두운 집 안에 혼자 앉아 눈물을 닦아내는 여자를 발견한 무니는 그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마루처럼 보이는 곳에는 여기저기 옷들이 흩어져 있었고, 화덕에는 방금 불을 지핀 듯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뭔가를 태우고 있는 모양이었다. 무니는 수아나나 의 엄마로 짐작되는 그 여자의 뒤편에 조용히 서서 무엇을 태우는 것인지 지켜봤다. 죽은 여자애의 물건이었거니 했던 짐작과는 달리 타고 있는 건 남자용으로 보이는 옷이었다. ‘왜 남자 옷을 태우는 거지?’ 그때 구석에 있던 방에서 한 남자가 나오더니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걸었다. 수아나나 의 아빠일 것이다. 무니는 알아들

을 수 없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말에 입을 막으며 울음을 삼켰다. 그 상태로 여자가 뭐라고 대꾸하자, 남자 역시 힘겨운 말투로 뭔가를 길게 설명했다. ‘답답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니가 그렇게 답답해하는 사이 남자는 여자 바로 옆, 그러니까 무니가 서 있는 곳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제야 남자가 바로 자기 옆까지 와있다는 걸 알게 된 무니는 깜짝 놀라 문 쪽으로 걸어갔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였지만, 남자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는지 그가 움직이고 있는 쪽을 쳐다봤다. 무니는 발걸음도, 숨소리도 멈추고 그대로 정지한 채 남자가 주의를 돌리기만을 기다렸다. 남자는 입구 쪽을 쳐다보며 고개를 가웃하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다시 아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무니는 그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가 얼른 다시 들어갔다. 아무리 투명인간이 되었다고 해도 숨소리까지 투명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무니는 손 안에 든 진주 모양의 검 조각에 온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크는 정신이 없었다. 조용했던 사람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을 좋아하긴 했지만,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이었다. 난다 역시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수아킴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에서 몹시 부자연스러워서 낯설게 느껴졌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잠깐만 기다려봐. 요약이 필요하니까, 아무튼 설탕과 철에 관한 이야기야.”

답답하지만 별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쉽사리 입을 다물 거 같지 않았다. 알 수 없는 건 사람들 모두가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수아킴이라는 사실이었다. 난다는 문득 아까 수아킴이 말을 걸었을 때 떠올랐던 이상한 느낌과 나크가 말한 ‘설탕’이라는 단어가 어찌지 연관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설탕과 철을 교환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요?”

난다가 참지 못하고 나크에게 물었다. 그들의 말에 집중해 완전히 그 형태를 드러냈던 나크는 순식간에 다시 투명해졌다.

“뭐야! 네가 지금 차크라발라 말을 알아듣기라도 했다는 거냐?”
기분이 나쁘다는 말투였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에 살해당한 그 남자 이야기가 생각나서요.”
“아. 그래?”

거의 투명해졌던 나크가 조금씩 다시 형태를 드러내며 말했다. 여지없이 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었다.

“흠. 아무래도 저 수아킴이라는 자가 죽은 데겐이라는 친구 대신 잠부의 귀족과 통신하는 역할을 맡았던 모양이야. 철을 차크라발라 밖으로 가져가는 일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리긴 했지만,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연락이 왔던 모양이거든. 철의 쓰임에 대해 데킴이 오해를 하고 떠났다고 말이지. 아무튼 저 수아킴은 잠부에서 보내온 연락을 충실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한 모양이지? 그러니까...”

아파트건립사업모집공고

개요 : 아래와 같은 고승대덕 원로스님들이 원력을 세워 포교원건립불사 및 복지후생 건립사업을 결의한다.

주제 : 많은 사람에게 이익한 주택을 저가로 제공하고, 사업 이익을 재원으로 삼아 노스님들의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구현한다

1. 사업 계획 : 아파트 건립부지

대지 9550(평당 250만원선)에 제공하며 주택(약 750세대)을 서민에게 저가로 공급하여 (평당 600만원선)자리이타를 실천한다

2. 사업 계획 : 포교원 및 복지원건립불사부지

임야 3000평(평당 80만원)허가득 봉서산 끝자락 서남향으로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배산임수의 명당터입니다.

상기와 같이 뜻이 있는 건설사, 시행사, 종단, 스님, 투자자와 많은 불자님들의 참여를 신문지면을 통해 공고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 여 스 님 : 향산, 백하, 운장, 덕삼 합장
사업시행자 : 동 보 산 업 개 발 주 식 회 사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27-13번지
문 의 처 : 031)941-0000 / 010-7677-7556

천도재영험

온 가족을
우유빛
명품피부로
바꿔보세요

상담 ☎ 0505)333-0008
F A X 0505)333-0009

홈페이지 sra.kr
스마트폰 mmww.kr

大韓佛敎曹溪宗
양 평 사 리 암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홍무원장
무공당 해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집합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침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충 또는 종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원으로 운영한다.

총본사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해봉 스님 직통 011-545-5060